“헌법기관인 국회 권능 행사 강압은 국헌문란 내란죄”

전두환 유죄 대법 판결문으로 본 윤 대통령 내란죄 적용가능 여부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협박행위 해당

한상희 헌법 교수 “계엄군 국회 진입시킨 것 만으로도 폭동 행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0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內亂罪)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씨가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처벌됐지만, 이들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1997년 4월 17일 전두환·노태우씨에 적용된 내란수괴·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내란죄 적용과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우선 사법부는 ‘국헌문란’이 확실한 경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당시 전·노 재판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면서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을 행사해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는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광주시민의 시위를 진압한 행위에 대해서 ‘시위국민은 헌법기관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헌문란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목적으로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에서 국회를 봉쇄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전·노 재판에서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畏怖心·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폭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도 “굳이 광의의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키는 것만으로도 폭동의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엄사태에서 피고소 고발인들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결의를 차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으로 미뤄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해 폭행·협박이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번 비상계엄에 연루된 이들도 같은 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있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만 내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96년 8월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씨가 손을 잡고 재판정을 응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 계획했지만 결의안 통과 막지 못해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으로 본 윤 대통령 비상계엄 실패 이유

국회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차단 방안 등 단계별 조치 담겨

한 대표와 불편한 관계도 영향…국힘 의원 18명 해제 의결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불과 6시간만에 해제됐다. 계엄담화문 발표 이후 2시간 30여분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 이유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2018년 공개된 이 문건은 ‘군사Ⅱ급 비밀’로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시나리오다. 이 문서에는 서울지역 위수령(衛戍令·지역 경비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군에 내리는 명령) 선포와 비상계엄 선포를 상정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수록했다.

비상계엄 선포시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과 운용과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방안, 보도매체 및 SNS통제 방안도 담겨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부분이다.

이 문건에는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계엄 유지를 위해서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이 160여명, 보수성향 의원이 130여명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현재 국회 상황과 유사하다. 현재 국회는 총 300명의 재적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1명 등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다.

문건에는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계엄 해제 건’ 직권 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를 약속해 다른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방법이 불가능하면 해제요구 안이 직권 상정 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두 번째 방법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것이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 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문건에서는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밤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1조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기 위해 진입했지만, 결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를 두고 치밀하지 못한 계엄 선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불편한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해제 의결에 찬성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알립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5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금된 성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입니다.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이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24년 12월 6일(금) ~ 2025년 1월 31일(금)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53-107-999990
KB국민은행 551-01-1289-075
NH농협은행 609-01-08827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062-222-3566)
■ ARS번호 : 060-700-1212 (한 통화 3천원)
■ 문자기부 : #9004 (문자 1통 2천원)
■ 문 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2024년 12월 6일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세상을 가치있게!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순천만새마을금고 공고 제2024 - 1호

업무용부동산 매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순천만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
나. 부동산의 표시 및 임대차 계약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임대차 계약현황(vat포함)	
전남 순천시 장천동 39-9외1필지 (순천시 중앙2길 22)	39-9	대	11㎡×(3/717)	1. 지하1층(174.96㎡) 다방 보증금 : 5,000,000원 임대료 : 월300,000원 기간 : 24.01.01~25.12.31	2. 3층(183.87㎡)사무실 보증금 : 무 임대료 : 연660만(선납) 기간 : 24.07.01~25.06.30
	39-10	대	202.9㎡		
	39-9외1	건물	726.57㎡		

2. 입찰(개찰)의 장소 및 일시
• 공고기간 : 2024.12.06.(금) ~ 2024.12.15.(일) • 입찰참가 신청등록 : 2024.12.16.(월) 10:00 ~ 16:00 • 입찰일시 : 2024.12.17.(화) 11:00 ~ 11:30
• 개찰일시 : 2024.12.17.(화) 11:40(즉시개찰) • 장 소 : 순천만새마을금고 본점2층 회의실 (순천시 중앙2길 22)
3. 입찰 및 입찰방법 : 최고가 경쟁입찰 및 직접입찰(전자 및 우편입찰불가)
4. 최저매각금액(예정금액) : 990,000,000원(일금구억구천만원정)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법인 및 개인(개인사업자)로서 입찰 참가신청 등록일까지 서류제출을 하고 입찰시작 전까지 입찰장소에 입장한 개인 및 법인으로 함.
나. 입찰신청서 명의로 소유권이전 처리가 가능한자.
6.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매각부동산을 현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며, 매각부동산 중 1층 ~ 3층은 당 금고 금융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매각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당 금고에 금융사무소 및 회의실로 임대하기로 하며 임대료는 3.3㎡당 26,500원(vat별도)이내로 환산(임대보증금포함)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단, 3층회의실은 임대차 종료 후 적용)
나. 낙찰자는 공고일 현재 상태에서 공부상 및 현황상태를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매각금액(예정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가 기한 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자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으로 함.)
8.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일 전일까지 최저매각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지정계좌에 입금 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불가)
(지정계좌 : 새마을금고 2627-09-0047243 , 예금주 : 순천만새마을금고)
나. 낙찰자가 2024년 12월 20일 오후4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당 금고로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전액 계약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공매개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계약체결기한 : 낙찰자는 2024년12월20일(금) 오후4시 까지 매매계약서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납부 :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10%(입찰보증금포함)이상의 금액이 당 금고 지정계좌에 납부되어야 성립합니다.
(지정계좌 : 새마을금고 2627-09-0047243 , 예금주 : 순천만새마을금고)
다. 매매대금의 잔금은 2024년12월30일(월) 오후4시까지 매매계약서상의 지정계좌로 완납한 경우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자가 한 입찰. 다. 소정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문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공고문에 공개된 예정금액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
사.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1. 권리이전 및 비용
가.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잔금납부일까지 지정계좌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12. 제세공과금 부담
가. 제세공과금은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부분은 금고부담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비용 및 잔금청산일로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매매목적물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잔금 납부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임대차 계약관계
가. 본 부동산 임대료는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일수계산하며, 매매대금 납부일 이후 임대료는 낙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본 부동산 인도일 이전 임대료 미납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남은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인도일에 낙찰자에게 양도합니다.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관행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사항은 광주일보 및 당 금고 본·지점 게시판등에 공고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금고 (충무기획팀 061-741-0001)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24년 12월 6일 MG순천만새마을금고 이사장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승환(800207-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6(운암동)
피상속인 망 이승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느단4587호로 신청하여 2024년 11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6일

• 상속인 : 1. 박연희(821027-2XXXXXX)
2. 이민솔(090218-4XXXXXX)
3. 이아윤(101228-4XXXXXX)
4. 이서준(140128-3XXXXXX)
5. 이서아(200318-4XXXXXX)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6(운암동)
청구인2,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박연희
• 신고기간 : 2024. 12. 6. ~ 2025. 2. 15.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박연희의 주소

분 실 공 고

• 분양권 공급계약서 일체 : 나주시 송월동 148-1 나주역자이 아파트 102동 2204호
• 계약자 : 정 세 자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4년 12월 6일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